



2017/2018 글로벌 보험산업 전망

권오경 연구원

최근의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세로 글로벌 보험산업 성장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부문별로는 생명보험의 성장률이 손해보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역별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손해보험 성장률은 2017년 2.3%, 2018년 2.5%로 기대되며 생명보험의 경우 2017년 3.1%, 2018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의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신흥국의 경우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의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세로 전 세계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¹⁾

- Munich Re(2017, 4)는 세계 보험산업 성장률을 2017년 2.9%, 2018년 3.0%로 전망함
 - 보험료 규모는 2016년 4조 1,800억 유로에서 2018년 4조 5,600억 유로 이상으로 예측함
- 지역별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며 특히 손해보험 부문의 성장세가 높을 것임
 - 생명보험 부문에서 신흥국 보험수요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나 선진국의 경우 성장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됨
- 최근의 세계경제 회복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위협요인으로 평가됨
 -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됨

■ 세계 손해보험 성장률은 2017년 2.3%, 2018년 2.5%로 예상됨

- 북미 지역의 성장률은 안정적이거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이 예상됨
- 신흥 아시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손해보험 성장세가 세계 손해보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됨
 - 신흥 아시아 지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1) Munich Re(2017, 4), "Insurance Market Outlook for 2017/2018"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부정적 영향에도 견조한 성장이 예측됨
- 아시아·태평양, 남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손해보험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남미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경기불황 종료와 신속한 경제회복으로 성장이 예상됨

■ 생명보험 부문은 2017년 3.1%, 2018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국의 경우 제한적 성장이 예측되는 반면 신흥국은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선진국의 경우 저금리의 영향으로 생명보험 성장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저금리로 2016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변액 및 일시납 저축성 상품판매가 현저히 감소함
- 반면 신흥국에서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며,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성장률 하락이 예측됨에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2017년 생명보험 성장률이 2016년 성장률 11.5%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저축성 상품에 대한 경제성장 둔화와 판매규제²⁾ 영향이 반영된 것임 **kiri**

〈표 1〉 세계 보험료 전망

(단위 : %)

구분	보험산업			손해보험			생명보험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전체	2.9	2.9	3.0	2.3	2.3	2.5	2.4	3.1	3.2
북미	2.2	1.4	1.7	2.5	1.1	1.4	1.7	1.7	2.0
남미	1.3	3.9	4.7	-2.1	2.4	3.7	7.1	6.6	6.7
서유럽	-0.1	1.3	1.3	1.7	1.5	1.4	-1.3	1.1	1.1
동유럽	3.4	4.0	4.2	3.0	3.7	3.9	4.6	4.9	5.0
중동/북아프리카	4.4	6.0	6.1	3.7	5.6	5.8	5.5	6.1	6.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1	2.2	2.9	0.0	3.4	4.2	0.1	1.8	2.4
신흥아시아	20.7	11.0	10.2	8.3	7.6	7.6	22.1	12.0	10.8
아시아-태평양	-1.8	1.6	1.8	-0.1	1.9	2.0	-2.5	1.5	1.6

주: 실질성장률임

자료: Munich Re(2017, 4)

2) 중국 감독당국은 실제 보험보장 성격이 아닌 자산관리 목적의 단기 저축성 상품의 판매를 규제함